

오피니언

다산포럼

서지문



2004년 4월 27일, 사탕수수농장의 노동자 1세기 전에 하와이로 이민갔던 고 권도인씨와 그의 아내 이희경씨가 대전국립현충원의 '애국지사묘역'에 안장되었다. 1888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권씨는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유학을 하고 싶었으나 집안 형편이 여의치 않자, 마침 그때 하와이의 사탕수수농장 노동자 모집광고를 보고 지원해 선발이 되었다고 한다.

성해서 매주 떡과 잡채, 산적 등 음식을 만들어 팔았다.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1918년 말에 3·1독립운동자금 10만달러를 만들어서, 네 살 먹은 딸을 친정부모님께 보여주기도 할 겸 귀국했다.

1894년생인 이희경씨는 대구에서 선교사들이 설립한 신명여중의 1회 입학생으로 수석 졸업하고, 미국에 가면 공부를 할 수 있을까하고 갔지만 배에서 내리자마자 결핵과 함께 가난한 신촌생활을 시작했다. 이씨는 빈한한 신촌생활 속에서도 다른 한국어학생들과 함께 대한부인구제회를 결

어느 이민노동자 부부의 애국

고 수감되었다. 그래서 안타깝게 3·1운동의 소식을 옥중에서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 2년 후 석방이 돼 하와이로 돌아갈 수 있었다. 부부는 그 후 세 명의 아이를 더 두어서 네 자녀를 길렀고, 막내가 대학을 졸업하는 날,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가르치는 것이 꿈이었던(이때 혼자되었던) 권도인씨는 졸업식장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머리가 좋고 아이디어가 풍부했던 권씨는 가구 제작업자로 크게 성공해서 하와이 최상류층 인사들의 가구를 주문 제작하고 늘 새로운 발명품을 궁리해 가구에 관한 특허를 40여 개나 냈다. 그의 발명

아이디어는 하와이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활용되었으며, 특히 2차대전 중에 그가 제작한, 공습을 피하기 위해 불빛은 새어 나가지 않으면서 환기는 되는 커튼은 큰 히트 상품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이디어 개발에만 골몰해서, 작물소와 바느질이나 종업원 관리 등 사업은 부인 이씨가 맡아서 했고, 그의 사업이 수익을 낸 것도 부인의 관리 덕분이었다. 이씨는 남편의 사업을 위해 공장에서 일을 하는 한편 독립자금 모금과 교회에서 한글 가르치기 등 한인사회를 돕기 위한 일도 헌신적으로 했다.

권도인씨는 부인이 집 밖에서 많은 일

막내딸 에스터 여사가 완성된 묘역과 묘소, 그리고 비석을 보기 위해서 84세의 나이를 무릅쓰고 내한했다.

에스터 여사는 수많은 애국영령들과 함께 잠든 부모의 완성된 묘와 부모의 공적 사상이 쓰여진 비석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쏟았다. 그리고 자신의 나이와 체력으로 다시 방한은 어렵겠지만 부모가 그토록 잊지 못하던 조국의 품안에서 잠들었고 조국이 부모의 애국심을 인정해서 그들의 묘를 관리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그녀를 무한히 안심시키는 것 같았다.

참배가 끝난 후 대전예술평화회관에 나들이를 갔는데 10월의 첫 토요일을 즐기러 나온 인파가 엄청나게 많았다. 에스터 여사는 한국이 발전해서 지방도시에도 아름답고 멋진 문화회관이 있고 문화를 향유하려 나온 가족이 많은 것을 보고 너무도 흡족해 했다. 한국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 문화수준도 높다는 생각이 한국의 장래에 대해 낙관하게 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나라의 오늘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애국인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재산을 바쳐 독립을 지원했는가를 망각하고 산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답하기 위하여 이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발전시키고 화합하며 내일 있게 살아야할 우리의 도리를 너무 쉽게 잊고 산다.

<고려대 영문학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청소년 길거리 흡연 막을 제도적 장치 없나

최근 청소년들의 일탈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고등학생들의 길거리 흡연이 방치되고 있다. 내년에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버섯이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아무런 단속이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하면서 정작 이들의 흡연행위 자체를 제한할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길거리 흡연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광주시 동구 충장로와 장동 일대의 보습학원 주변에는 청소년들의 흡연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의 빛나간 행동을 규제할 현실적 조치가 없다는 점이다.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을 목격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청소년들이 어떠한 경로로든 담배만 손에 쥐게 되면 흡연을 해도 단속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우범지역 순찰을 도는 경

찰관들이 청소년 흡연현장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일부 어른들은 청소년들의 흡연모습을 보고도 해코지가 두려워 못 본척 지나친다고 하니 씁쓸하기 짝이 없다.

담배는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썩먹는 유해물이다. 또 일단 흡연을 시작하게 되면 평생 흡연자가 될 우려가 높다.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중·고교 남학생 20.7%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 흡연자도 5.2%나 됐다.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청소년 흡연을 쉽게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의 빛나간 행동을 규제할 현실적 조치가 없다는 점이다.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을 목격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청소년들이 어떠한 경로로든 담배만 손에 쥐게 되면 흡연을 해도 단속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하남산단 악취, 6만 주민 고통 모르는가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이 수년째 공단에서 발생한 심한 악취 때문에 피해가 심각하다고 한다. 장덕동과 하남동 주민들에 따르면 수년 전부터 페타이어 재생공장과 K자동차 주물공장 등 13개 사업장에서 고무 타는 냄새 등 매캐한 악취가 발생해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일부는 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수만 6만 여명에 달하고, 민원 제기 건수도 크게 늘고 있지만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민들이 제기한 악취 민원은 지난해 102건을 비롯해 9월 말 현재 137건으로 대폭 늘어남 상태다.

광산구는 이러한 민원에 따라 지도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점검 결과, 악취 발생이 법적 허용 기준치 이내로 나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단속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건 행정기관으로서 자제가 아니다. 우선, 광산구는 광주시와 협의의 통해 해당 13개 사업장을 현재 R&D(연구·개발) 특구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단 단에 이주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전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는 하나 언제까지 주민들의 고통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광주시가 산업단지 및 택지지구의 승인권자로서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게 옳다고 본다. 공단에서 불과 100m~15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아파트 택지지구를 허용한 것 자체가 사태를 부른 게 아닌가.

아울러,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도 시급하다. 산단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마당에, 광주시가 오래 전에 만들어진 허용기준을 그대로 준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6만 주민의 입장에서 악취 사태를 속히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NGO 칼럼



김기현

아시아방송공동체에서 2012년도 다양한 문화가 쉬 쉬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이주민전래동화화책'을 지난 25일 베트남, 몽골, 일본, 중국 4개국 전래동화를 출판했다. 이주민전래동화책은 한글과 베트남어, 몽골어, 일본어, 중국어도 2종 언어로 표기하여 다양한 시각과 흥미로운 이야기를 그림과 동화로 풀어 다문화가족과 광주시민을 위한 이주민전래동화책 만들었다.

이번 출판된 동화책은 다문화가족들이 2세대들과의 정서적 유대감이 결여되고 한글인

이주민 전래동화 속 숨겨진 문화 엿보기

지가 부족하여 완벽한 의사소통이 되지 못한 채 서로간의 불신과 반목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한국인남편과 의 문화적 갈등은 다문화가족의 체제를 불리하기도 한다.

이주민 전래동화책은 다문화가족들의 학습능력을 높이고 단순한 한국사회의 동화주의에서 탈피하여 이주민의 문화를 알고자 한 것이다. 기획단계에서부터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문화가족 2세들에게 어머니 언어를 책을 통해 어머니 직접 들려주면 정서적 교감과 전래동화 속에 숨겨진 어머니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융합시키는 목적에 기획되었다.

이주민의 국가는 경제가 가난할 뿐이지 결코 문화가 미개하지는 않다고 본다. 우리는 경제적 우위가 문화적 우월이라고 믿고 다문화가족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 하

지만 우리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며 다문화가족 역시 언어적 문화적 장벽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에 융화하지 못하고 정서적, 신체적으로 고달픈 한국생활이 되어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자포자기하는 이들도 발생하고 가족해체가 발생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미래의 한국을 짊어질 다문화가족 2세를 위해서 우리는 결코 방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주민전래동화책은 결혼이주민들이 기획단계부터 참여하여 전래동화책을 선정하고 번역작가를 도우며 동화책이 출판된다. 출판된 2종 언어 전래동화책은 다시 예비사회복지가의 송미숙선생님을 비롯하여 동화구연자들이 가다듬어 2종 언어 동화구연으로 개발하고 우리말과 중국어, 일본어로 결혼이주민이 영어를 대상으로 울퉁, 빛 그림을 이용하여 원어로 동화책을 읽어주는 사업을 전년대병원 소아과병동에서 무상으

로 동화구연을 실시하면서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봉사를 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될 이주민전래동화는 우리나라 낭랑공주와 호동왕자의 이야기와 유사한 베트남 동화 '마술석궁'은 서림초등학교 이 미경교사가 삽화를 그려주었고, 몽골동화는 선이교은치과 가족인 정현주 작가가 일본의 도치기현의 전래동화 '아이는 보물'은 정은경씨가 번역하였으며 김현정 화가가 그려 모두 재능기부로 이루어졌다.

이번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갤러리 '창'에서 전시되는 이주민 전래동화 원화전시회는 11월 2일까지 전시예정이며 그림책 속에 숨겨진 세계나라라는 주제로 열린다. 전래동화책이 출판부분에만 국한하지 않고 아동들에게 작품의 세계와 연계되는 동화구연, 북아트, 색칠하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높이고 다문화 시대에 맞는 다문화 감수성이 증진될 것이다. 광주시민 및 다문화가족들 모두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경험과 광주시민들에게는 이주민 출신국에 대한 이해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시아방송공동체 기획실장>

기고



설성현

세계 경제위기 속에 우리 나라 강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에서 선두권을 질주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강소기업을 '수출 1억 달러 이상이며, 기업당 평균 25개국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세계 시장 지배력을 갖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한국형 히든 챔피언'이라 명명했다. 이들이 작은 규모에도 세계 시장을 주름잡을 수 있는 배경은 R&D 투자가 3.65%로 전체 중기 평균(2.06%)보다 높으며, 특허건수는 기업당 38개에 이를 만큼 강력한 기술력으로 무장

'강소농' 육성의 메카 산림자원연구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 분야에서 '히든 챔피언'이 있다면 농업분야에는 '강소농'이 있다. 농업이 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역대 소득을 올리는 '강소농'은 전남에도 적지 않다. 최적의 작물을 선정하고 안전한 재배기술을 적용, 품질 좋은 작물을 생산한 결과다. 최근 우리 사회에 몰아치고 있는 '웰빙' 바람도 한 몫하고 있다. 좋은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면서 유기농제품이나 버섯 등 기능성 작물에 대한 소비가 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위기에 빠진 농촌 화생책의 하나로 '강소농'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남도도 '강소농' 육성을 위해 애쓰고 있다. 몇 년 전부터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유기농 전환이나, '녹색 미래를 여는 생명의

세계'를 주제로 열렸던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와 같은 행사도 결국 '강소농' 육성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강소농' 육성의 과제는 생산-마케팅 과정에서 농민들이 활용가능한 핵심역량의 강화라 할 수 있다.

전남에는 도내 버섯 농가를 '강소농'으로 육성하고 있는 '강소기관'이 한 곳 있다. 규모는 작지만, 강력한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산림자원연구소가 그곳. 이 연구소는 연구 책임자 1명과 기간제 연구원 3명, 그리고 지난 1999년 설치된 소규모의 무균실과 재배실, 실험실을 갖춘 게 전부. 그러나 전남 거의 모든 버섯 재배자들에게 멘토로 자리 잡아온 지 오래다.

산림자원연구소는 특허 출원 및 등록 46건, 연구결과 기술이전 14개 업체 등의 팔북

할 만한 성과를 기록했다. 최근 6년간 주요 연구논문 발표실적만 해도 국내 학회 53건, 국제학회 16건 등 모두 69건에 이르고 있다.

이 연구소는 특히 버섯 분야에 연구 성과의 3분의 1가량을 집중해 수치로 기록될 수 없는 성과를 내고 있다. 바로 농가에 대한 기술이전과 현장지도. 전국에서 이 연구소를 주목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꽃송이버섯이나 참버섯버섯 등의 종균이나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농가에 보급, 소득원 창출을 통한 '강소농' 육성에 헌신하고 있다.

'강소농' 육성 필수과제는 기술력이다. 특히 중국·일본 등 주변 국가들보다 앞장설 수 있는 기술력 개발과 농가보급이 시급하다. 지금 그 역할을 산림자원연구소가 도맡아 하고 있다. 전남도는 산림자원연구소의 열악한 시설과 장비, 연구 인력의 보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더 많은 재배농에게 '강소농'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산림자원연구소 환경 개선에 힘써주기 바란다. <컬리스트·서영대 교수>

스마트기기 전자파에 성장기 아이들의 뇌 멎는다

요즘엔 서너 살 먹은 어린이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휴대폰 전자파가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우리나라는 무척 둔감하다. 정부도 규제나 대응책이 없고 손을 놓고 있는 꼴이다.

이렇게 떠나 할 것 없이 쓰는 휴대폰, 그중에서도 스마트폰은 자극적이지만 반응하고 현실엔 무감각하게 돼 뇌 자체가 변형될 수 있다고 한다.

탁월하다. 그렇다 보니 어린 학생들은 전화뿐 아니라 게임기로서도 활용한다.

그런데 이게 게임을 하다 보면 속도가 느리거나 일시적인 장애가 생길 경우 청소년들을 자극하고 짜증나게 만든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조급해지고, 불안해하고, 다혈질적이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이는 의학적으로 게임에 중독되면 도파민이라는 신경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면서 뇌세포 중 충동을 조절하는 부분과 자극에 반응하는 부분 그리고 판단을 담당하는 부분이 이상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게임을 즐기는 어른들이 그정도인데 정서적으로 미숙한 청소년들은 더 심하다는 것이다. 어린 나이에 스마트 기기의 게임에 지나치게 노출되면 성격 변화도 빠르고 쉽게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눈에 강렬한 자극이 들어가면 뇌 활동에 비정상적 자극을 주고,

이것이 뇌 전체에 들어가 간질이나 발작으로 일어나는 원리라는 것이다.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녀들에게 이런 자극과 뇌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최윤철·광주시 남구 양림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無等鼓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기억나는 영화는 고르라면, 아마도 '007'이라는 대답이 최다일 것 같다.

007 시리즈는 직업이나 취미를 따지 않고 누구나 한 번쯤은 극장이나 TV에서 즐겨 보았을 법한 영화이기 때문

이다. 007 제임스 본드 시리즈가 시작된 지 올해로 50년째다.

1962년 10월, 007 시리즈 제1편 '닥터노'가 개봉된 이후 지난 주말 한국에서 선보인 샘 멘테스 감독의 '스카이폴'에 이르

까지 23편이나 만들어지면서 영화 사상 최장 시리즈를 기록하고 있다. 007 시리즈는 취향과 상관없이 세계적인 뇌리에 '영화의 보통명사'로 자리 잡았다.

007이 대 히트작인 만큼 주인공 역시 최고 배우의 자리를 차지했다. 지금까지 배출된 제임스 본드는 모두 6명.

이때 제임스 본드 가운데 워니워니해 도 압권은 제 1대 손 코넬리라는 데 이견이 없다. 이어 조지 라랜배, 로저 무

어, 티모시 달튼, 피어스 브로스넬, 다니엘 크레이그가 계보를 이어왔다.

한국에서도 인기는 예외가 아니다. 국내에서는 시리즈 제2편 '007 위기일발'이 '닥터 노'보다 먼저 개봉된 이후 장기흥행을 달리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상영을 시작한 23번째 작품 '007스카이폴'이 개봉 첫 주 스크린을 점령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스카이폴은 주말이었던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66만9000명을 끌어모아 누적 관객수 87만2000여명을 기록

했다. 개봉 3일 만에 80만 고지를 점령, 3일 내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같은 세계적인 뇌리에 '영화의 보통명사'로 자리 잡았다.

'도둑물', '광해'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해 제2의 한국영화 붐을 일으키나 싶더니 007에 밀리는 형국이다. 007이 워낙 높은 산이라지만 한국영화의 도전은 계속돼야 한다.

/박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培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경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회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재무부 2200-621 체육팀 2200-697 사진부 2200-693 조사부 2200-571 전산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광고매점국 227-9600 <F A X 227-9500> 다사인 2200-536 기획사업국 2200-55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